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예배 중에 참빛찬양대원을 임명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3월 정기임원회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간(3월30일(월)~4월3일(금)) 저녁 7:30 교육관에서 고난주간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폐제 찬양과 기도 모임으로 모입니다. 이 주간 새벽기도회는 쉽니다.

오늘 오후 2:30에 수납전문가(백미영 강사)를 초청해서 '정리수납의 기본원칙과 단계'에 대해서 배웁니다.

농도생협에서 유기농 양계장 황토농장(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의 유정란을 예약주문 받습니다. 유정란 1판에 10,000원, 구운 유정란 1판에 13,500원입니다.

삼례은혜교회에서 만든 유기농 딸기 잼을 판매합니다. 한 병에 만원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사순절 달력에 나와 있는 실천사항들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1부	사 50:4-9 / 시 31:9-16	2부	
예배	빌 2:5-11 / 막 15:40-47	예배	막 13:1-2

오늘 식당 봉사 : 찬양대
 다음 주 식당봉사 : 정경례 배삼순 김미현 김진선 권현숙 서미경 권 순 김재환
 오늘설거지봉사 : 청년부
 다음주설거지봉사 : 유아부 중고등부 교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꽃피는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따스한 봄별, 살랑대는 봄바람 모두가 주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총을 받아들여 우리도 아름다운 존재로 꽃피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움과 어두움을 벗어나고 한 송이 꽃처럼 밝고 환하게 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정치인의 결정에 따라 자식들의 밥값을 걱정해야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름과 한숨에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정치인으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보다 우선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신철	이혜경	강영님	구재원	권정자	김명순	이교영	김용진	박효선
김정길	최속화	김종철	고영애	김준호	곽혜자	김중현	성귀옥	김현동
오유경	김혜영 ^a	김훈동	유경순	박병구	박영희	백성래	송영광	송인선
심상숙	오미숙	유성근	안상남	윤미경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은종인
이광석	이경희	이미휘	이부곤	이순용	김신실	이응석	이은경	이주영
오재영	이준림	이현순	임영선	임형욱	장근성	박희순	장아름	전인섭
조경자	조현권	박아영	주경진	이윤정	차혜심	노미향	최재욱	이수정
한상경	허성호	진은혜	홍성식	이유리	무명 ²			

감사헌금

김용길	최영혜	김진중	김태정	박병구	박숙미	신정훈	이은미	신찬장로
윤미경	윤수진	이치림	강상연	이호원	임광호	장미경	장영숙	정윤성
서효진	조순덕	주은경	한상익	정영선	한채빈	홍성식	이유리	무명 ¹³

생일감사헌금

김준호

녹색꿈헌금

김용진 박효선 김정진 김혜정 정수복 장미란

백	혜	숙	박	성	희	정	두	리	박	영	희
신	진	식	최	경	미	임	정	자	이	재	문
장	영	숙	신	영	신	장	미	경	장	영	숙
박	홍	재	박	홍	재	정	선	희	조	영	순
권	미	숙	박	미	영	허	정	윤	배	상	순
김	금	순	김	금	순	이	봉	옥	강	순	배
곽	권	희	윤	수	진	김	재	광	윤	미	경
안	홍	숙	오	현	정	김	명	희	노	성	희
김	경	혜	홍	춘	숙	송	양	진	김	경	혜
박	혜	경	박	혜	경	정	현	숙	최	숙	화
김	재	흥	오	자	영						
김	재	흥	송	형	영						
이	범	석	이	진	영						
이	범	석	곽	상	준						
신	진	식	이	오	복						

참빛 찬양단 (2015년)

대장 : 이현순 총무 : 김민화 지휘자 : 안홍숙 반주자 : 김수진

소프라노 :

고숙이 문복순 박성실 박옥식 배삼순 박혜경 안정숙 유금주
이오복 이은문 장미경 정복순 정영선 진정숙

메조 :

김민화 김희우

알토 :

권미숙 김진경 문금석 박미영 박영희 백혜숙 유영남 이봉옥
이소순 이재문 이현순 임창선 조병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형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높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며 사십시오.

아멘. 온통 땅의 것에만 마음이 팔려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본받으며 살겠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도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수요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 정리수납 특강	수요저녁성경연구 / 사무엘상하 강의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재훈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한완식 장로	이용현 선생 유경순 권사

3	영접위원	김인걸 이민범 김경연 이명희 오자영 박시내
	헌금위원	김정민 권미숙

믿음으로 읽는 글

박정오 목사의 기도문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뇌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저희들은 압니다.

저들은 저들이 배운 것과 들은 것과 확신하는 일에 너무나 대치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젊은 정열로 개혁해 보고 싶고 새롭게 만들고 싶어하는 열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번번이 기성세대의 장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며, 이 사회가 저 젊은이들의 애기를 미숙한 젊은이의 애기라고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외쳐대는 말 가운데에 귀담아 들어야 하고 가슴을 치고 참회해야 하는 우리의 잘못들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저들 앞에서 참다웁게 살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저들을 저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가슴을 치고 몸부림치게 하는 어려움 속에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참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바라옵기는 오늘 이 땅 위에 젊은이로 태어나서 그 꽃다운 시절을 최루탄 가스로 눈물을 흘리고 온몸을 구타하는 몽둥이에 맞아서 질질 개같이 끌려가는 저들의 삶을 우리들은 내 죄 탓은 아니라고 변명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나라의 젊은이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가인아,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당신의 물음을 오늘 우리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이까? 내가 저 거리를 뛰어다니는 저 젊은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핑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민족이 진정 정의와 진리와 평화와 기쁘게 사는 참다운 변영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나 또는 소수의 집단의 탐욕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눈물겨운 나라가 아니라 진정 자유민주주의

의 나라가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법에 의해서 힘이 없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살 때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두려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참 평화와 정의가 깃들여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출입하는 젊은이들에게 같이 하시고 저들이 당신 앞에 겸허히 머리 숙여 깊은 고뇌와 함께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성령으로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주셔서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저들이 좌절을 딛고 용기 있게 일어서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안에서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여, 역사의 운행을 정의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1987. 4. 5 기도문

... 끝으로 저는 지금 이 시간 해방 수년 후 제 나이 열아홉, 피 끓고 살 뛰놀며 젊은 가슴의 꿈 높고 푸르던 때, 그 어느 수요일 아침 송도 중학 예배시간에 첫 대면으로 뵈었던 함석헌 선생님의 특이한 풍모와 예리한 눈길,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깊이 있던 뜻말씀이 떠오르고, 그 때부터 외우고 새김해온 선생님의 자작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의 마지막 연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을 가졌거든 그대는 행복이나라 / 그도 행복이나라

그 둘을 가진 이 세상도 행복이나라

그러나 없거든 거친 들의 무덤뿐이나라

돌이켜보면 나는 그 사람 나사렛 예수로 해서 행복했는데, 그래서 평생에 이 예수로 너도 세상도 복되기를 바라서 이 목회의 길을 걸어 오느라고 애썼지만, 지금 이 시간 또다시 나는 다하지 못한 그분의 분부 앞에서 머리 숙여 부끄러움과 죄스러움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여, 당신으로 해서 든든하였나이다. 여러분! 내 내 그분과 더불어 복되십시오. - 1991.8

- 박정오, 「주여 당신으로 해서 든든하였나이다」 중에서
(지난 3월 20일은 故박정오 목사님의 8주기였습니다)